

총선 후보 물갈이 공감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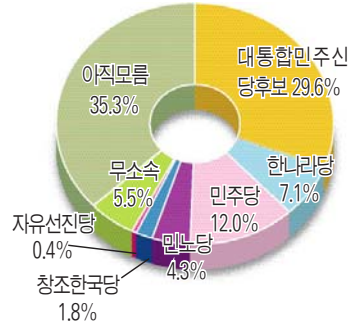
■광주일보·KBC 공동 광주·전남 여론조사

이명박 정부 경제 전망 '부정적'

광주·전남지역민 2명 중 1명은 이명박 정부 체제에서도 지역경제가 지금보다 좋아지진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통합민주신당(이하 신당)과 민주당과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월 치러지는 18대 총선에서는 10명 중 3명이 신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혀, 10명중 1명 꼴인 민주당 후보 선호도를 크게 앞섰으며 총선결과에 대해서도 10명중 5명 가량이 신당의 우세를 점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총선의 화두로 떠오른 현역의원 물갈이 문제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혀, 물갈이

문이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사실은 광주일보가 KBC 광주방송과 공동으로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백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광주·전남 유권자 1천17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과 2일 이틀간 실시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것이다. (조사결과 4·5면)
이번 조사에서 '이명박 정부체제에서 한국 경제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1%가 '현재와 별 차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더 나빠질 것'이라는 답변도 8.3%를 기록,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52.4%가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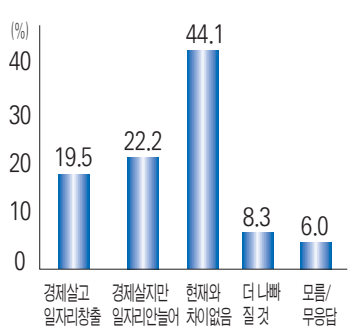
■국회의원 정당후보 선호도



는 것으로 분석됐다.

18대 총선과 관련해선, '현재의 정치구도를 전제로'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신당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29.6%로 나타나, 민주당 후보 선호도 12.0%를 2배 이상 앞섰다.
응답자들은 또 신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실시될 경우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은 의원을 배출할 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해 46.7%가 '신당이

■이명박 새정부 경제활성화 기대여부



더 우세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란 답변은 12.1%에 그쳤으며, 무소속이 우세할 것이란 전망은 11.0%를 기록했다.
호남의원 물갈이론과 관련해선 '공감한다'는 의견이 35.7%, 그리고 '각 현역의원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40.1%로, 전체적으로 75.8%가 '대체로 공감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8.9%에 불과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설 민족 대이동 시작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설 연휴를 이틀 앞둔 4일 광주역에는 고향에 가져갈 선물을 꾸러미를 들고 플랫폼을 나서는 조기 귀성객들로 붐볐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전남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식약청 서해안 유통·판매 95건 검사 “이상 없다”

“전남 수산물 안전합니다. 기피하지 말고 애용해 주세요.”
설을 앞두고 전남 등 서해안 일대 수산물이 타르 유입 영향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 전역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이 확인돼 관심이 쏠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서해안 전역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산물과 유통업자 9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12월 이후 2개월 연속 전남 등 서해안 지역 수산물의 안전

성을 확인해주는 것이어서 가족이나 관로 애용을 권고하고 있는 전남 어민들은 이를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난달 식약청은 서해안 전지역 위험도 및 주변 유통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81건과 유통업자 14건을 수거해 외관검사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16종 검출시험 등 화학적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범례와 외관은 모두 이상이 없었으며 PAHs는 검출되지 않거나 자연상태에서 검출되는 수준이었다. PAHs 검사결과 어패류 81건 가

운데 57건에서 0.01~3.38ppb 농도로 검출됐으며 수족관 물 14건 가운데 6건에서 0.001~0.027ppb 수준으로 측정됐다.

이 같은 농도는 유럽연합(EU)의 해산물에 대한 PAHs 기준치(2.0~10.0ppb)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에 대한 권고치(0.7ppb)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식약청은 “이 정도의 PAHs 농도는 자연상태에서 검출되는 수준이며 원유유출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전남지역 한 수산인은 “타르 유입 소식에 타르와 전혀 상관없는 수산물까지 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어 설을 앞둔 요즘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번 결과 발표를 계기로 전남을 비롯한 서해안 일대 수산물의 안전성을 믿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로스쿨’ 25개 대학 원안대로 확정

조선대 “모든 법적 조치 강구”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총리 겸 장관은 4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대는 정원 120명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에 선정되고, 조선대는 탈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로스쿨 설치 예비인가 대학’을 확정·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은 서울 15곳, 지방 10곳 등 총 25곳으로 지난 1일 발표했던 잠정안과 같다.

이에 따라 조선대를 비롯한 전국의 로스쿨 탈락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선대는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져분신청 등 모든 법적조치를 전명했고, 단국대는 탈락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이날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5대 권역으로 나누고 우수 법조인 양성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선정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며 “법학교육위는 대학의 획득점수를 바탕으로 서울권역과 지방권역에 배정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권역별대로 대학을 선정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지방권역의 경우 권역별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대학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정하고, 차상위 이하의 점수를 획득한 대학은 점수, 법조인 배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들은 이달 안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오는 7~8월경 최

종 설치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 조사를 거쳐 9월 최종 설치인가를 받게 된다. 로스쿨 개원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다.

교육부의 확정안 발표와 함께 조선대를 비롯한 탈락 대학들의 반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선대는 발표 직후 법과대학 전체교수 회의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조선대 김춘환 법대 학장은 “심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예비인가 효력정지 가져분 신청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국대 권기홍 총장은 로스쿨 탈락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하는 등 탈락 대학들의 진통이 계속됐다.

한편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역간 균형의 원칙이 예비인가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앞으로라도 이를 배려하기로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시, 각화농산물시장 이전 추진

광주시가 각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4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열고 각화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건설 또는 확장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91년 건립된 각화농산물 도매시장이 시설물 노후로 개·보수비 증가는 물론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전체림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시는 이전의 경우 2천여원, 확장은 1천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오는 3월경 제출되는 타당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전이나, 확장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부의 ‘전국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을 추진 중이다. 농림부의 대상지 결정은 3~4월경 이뤄진다. /윤영기자 penfoot@

설 특집·극장가·TV 11~21면
쓱 뽑아 연휴 내내 보세요

2008년 7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 영어명문학교를 개원합니다
영어 2020 World 2020
라이크외국어학원 LIKE SCHOOL